

10만 인재 키우기·사통팔달 교통천국·100원의 행복

<김영록>

<신정훈>

<장만채>

민주 전남지사 예비후보 정책·공약 살펴보니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경선이 이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김영록 후보는 '10만 인재 키우기 프로젝트'를 통한 인재 육성을, 신정훈 후보는 '사통팔달 교통천국, 어디서나 1시간대'라며 SOC 확충을, 장만채 후보는 순천 전역을 정원화해 에코에듀센터와 연계한 체험관광 거점화를 제1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후보 3명 모두 서부권 출신인 까닭에 동부권 표심 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김영록 예비후보=김 후보는 '10만 인재 키우기 프로젝트'를 통해 제2·3의 젊은 김대중을 배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대학입시에서 농어촌 출신비율을 확대하고, 기업체는 지역인재 쿼터제를 시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남을 세계적인 농수축산 생명 산업벨트로 육성하겠다는 다짐도 했다. 생산·관광·유통·생태 체험 대단지 농생명융복합 단지를 조성하고, 친환경 미생물농법의 확대 보급으로 안전한 국민건강, 식탁혁명을 이루겠다고 손꼽는다.

맛갈스런 온맛이 일품인 전남을 식문화관광 메카로 육성·지원한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특히 맛과 멋 전통의 결정체인 전남습식문화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 남도한식을 외식사업으로 연구·발전시켜 전국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여수 밤바다·순천만 정원·서남해안 등을 세계적 체험형관광·휴양형관광 메카로 조성, 신재생에너지·바이오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대표산업 육성, 향만클러스터 조성으로 관광향·목포향 경쟁력 강화, 지속적인 SOC 투자, 미래 전략산업으로 '섬' 개발, 동부권에 지방분권형 제2부지사 신설 등을 내놨다.

◇신정훈 예비후보=신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남 공약과 연계한 '문재인

김, 농수산 생명 벨트 육성 신, 반값 전기요금 실현 장, 순천 전역 정원화

특명, 남도를 살려라'라는 주제로 10대 공약을 제시했다.

신 후보는 최우선으로 '사통팔달 교통천국, 어디서나 1시간대'를 표방하며 SOC 확충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시민의 발걸음인 버스·택시·여객선 준공영제 실시와 교통비 반값 실현, 혁신도시권을 중심으로 1시간내 철도망 구축과 경전선 전철화, 전남교통공사 설립 등이다.

그는 또 인구·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 '내 일 많은 전남, 풀려오는 사람들'을 외친다는 전략이다. 철강·화학·조선 등 주력산업의 구조고도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통한 다양한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반값 전기요금 10년내 실현 등도 제시했다.

농업분야에서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과 농업인 소득보장제 실시, 1억이상 부농 1만가구 프로젝트 추진, 지역 푸드 플랜 및 공공급식 확대, 친환경 안전 무상급식 전면 실시 등을 약속했다.

무안공항 주변 및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 중국기업 전용공단 조성, 한전공대 설립 및 에너지신산업벨리 일기내 완료, 동부권에 도청 제2청사 건립, 광주전남관광공사 설립, 군입대 자녀 무상 상해보험 가입 등도 제시했다.

◇장만채 예비후보=장 후보는 '100원의 행복' 대표 공약으로 내놨다. '100원의 약속 쿠폰', '100원의 행복바상' 등 '전남-100원의 행복'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이다. '100원의 약속 쿠폰'은 전남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순수 물리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물리치료에 필요한 자부담 2400원을 월 3회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 임종석 비서실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100원 호 쿠폰'으로 지급해 저소득계층 어르신들에게 의료비용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지역별 맞춤형 공약이 눈에 띈다. 순천만국립정원을 넘어 순천시 전역을 정원화한다는 계획이다.

여수는 국제 미항으로 개발하고 여수도 심은 역사·문화 공간으로 조성한다. 광양은 신소재허브로 개발하고, 신소재 관련 대학도 신설한다. 목표는 백련로에 대한민국의학연구원 유치해 해외관광으로 거점으로 개발한다.

배 수매가 현실화와 농산물 가격 안정화, 농산촌지역 체험·치유센터 조성, 세계 최고 경쟁력 가진 바다와 섬을 활용한 관광단지화 등도 제시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文대통령 “적폐청산 과정 중하위직 공무원 불이익 없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부처별로 진행되고 있는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활동과 관련해 “정책상의 오류가 중대한 경우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정부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들에게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처별 적폐청산 TF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부 후선이 있었으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국정농단으로 규정하면서 실무직원들까지 무대거로 수사 의뢰를 권고해 일부 논란을 빚은 사례를 염두에 둔 언급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의 목적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정책과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데 있는 것이지 공직자 개인을 처벌하는 데 목적이 두고 있지 않다”며 “명백한 위법 행위는 사법처리가 불가피하겠지만 단지 정책상의 오류만으로는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TF의 권고를 정부 입장으로 인식하기가 쉬운데 그로 인한

후선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며 “각 부처는 그런 방침을 분명히 밝혀서 공직사회가 과도하게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7월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해 발표했고 1년 과제로 ‘적폐 청산’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은 19개 부처와 국무총리실, 감사원 등에 ‘적폐청산을 위한 TF 구성’을 지시했고, 각 부처에서는 적폐청산 TF를 구성, 운용하고 있다.

/연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전남지사 경선 후보들 10대 공약

김영록 예비후보	신정훈 예비후보	장만채 예비후보
'10만 인재 키우기 프로젝트'로 인재육성	사통팔달 교통천국, 어디서나 1시간대	순천 전역 정원화해 체험관광의 거점화
세계적 농수축산생명 산업벨트 육성	내 일 많은 전남, 풀려오는 사람들	여수 국제 미항으로 개발
식문화관광 메카로 개발	에너지 자급자족, 광합성 녹색전남	광양, 신소재허브 개발·대학 신설
세계적 체험형관광·휴양형관광 메카 조성	늘어나는 농어업 실력, 줄어드는 걱정거리	한국치의학연구원 목표 유지
신에너지·바이오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	한발 앞선 첨단기술, 미래형 두뇌 전남	혁신도시에 벤처창업지원센터 건립, 전남형 실리콘밸리 조성
일자리 창출하는 지역대표산업 육성	도시사 위에 도민, 250만 손발	무안공항 활주로 국제선 수준 확장
향만클러스터로 관광향·목포향 경쟁력 강화	따뜻한 이웃사촌, 넉넉한 전남인심	화순 적벽 세계적 관광명소화
지속적인 SOC 투자	생기발랄 감성전남, 45억 아시아 관광 허브	배 수매가 현실화, 농산물 가격 안정화
미래 전략산업으로 '섬' 개발	전남교육 백년대계, 든든한 전문인력	농산촌 지역 체험·치유센터 조성
동부권에 지방분권형 제2부지사 신설	오순도순 집안 살림, 피자는 웃음소리	바다와 섬 활용한 관광단지화

민주 오늘부터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

전남 13~15일, 광주 18~20일
과도한 흠집내기·과열 양상 경계

더불어민주당은 11일부터 총정권(11~13일)을 시작으로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단수·전락공천 후보가 공천된 6개를 뺀 11개 지역에서 4개 권역으로 나눠 경선을 한다.

경선의 첫 출발지는 충남·충북·대전이다. 이들 3곳 지역은 11일부터 사흘간 경선을 치른다. 경선에 앞서 1차례 이상의 TV 토론을 해야 하는 만큼 충남과 대전 토론회는 10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렸다. 충남지사에 도전하는 복기왕 전 아산시

장과 양승조 의원(이하 가나다순)이 정책과 비전 등을 놓고 치열한 토론 대결을 벌였다. 또 박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이상민 국회의원, 허태정 전 유성구청장 등도 이날 토론회에서 대진장 후보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 받았다. 충북지사 경선 후보인 이시종 현 지사와 오세재 의원은 앞서 전남 저녁 TV 토론회를 했다.

민주당은 충청권 경선 이후에는 전남·전북·제주(13~15일), 인천·대구(15~17일), 광주·서울·경기(18~20일) 순으로 경선을 이어간다. 경선에선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 50%를 합산한 결과로 승패를 결정한다. 경선 후보자가 3명인 광주와 전남,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등 7곳은 첫 경선에서 50% 이상의 지지를 받은 후보가 없으면 1·2위 후보 간에 결선투표가 치러진다. 결선은 후보인 이시종 현 지사와 오세재 의원을 가리는 시간(48시간 이내)을 거친 후 이틀간 펼쳐진다. 경선 승리를 위해선 '당심'과 '민심'을 동시에 잡아야 하는 만큼 후보들 간의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이날 “더 많은 노출, 더 많은 후보, 더 치열한 경선이 6월 선

거를 준비하는 당의 기조”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선이 치열함을 넘어 과열 양상으로 흐르는 것에는 경계감을 나타내는 분위기도 당내에 흘렀다. 당내 후보 간 흠집 내기가 지나치면 자칫 분선 경쟁력 약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 관계자는 “선거전이 과열 양상으로 흐르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각 시도당에서 추천받은 인사 20여명으로 부대변인단을 꾸려 지역 선거 관련 사안을 꼼꼼히 살펴보고 소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 상태”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무안공항 출발

일본 기타큐슈, 마츠모토(나가노), 다낭 직항 전세기

2018년 봄의 시작을 조이투어와 함께 하세요! 가까운 무안공항에서 쭈우욱~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여행 길이 즐거운 동반자!!!

NAVER 조이투어 검색 http://www.joytour.kr

일본여행 / 국내·제주여행 / 해외여행 전문여행사 조이투어

대표전화: 062-234-3222

FAX: 062-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구서로 180(금남로5가)

대표이사 최금환

무안 ↔ 일본 기타큐슈 직항 전세기

2018년 5월 13일(일)부터 정기편 운항
화요일(3박4일) / 금, 일요일(2박3일)

오후 출발(화, 금, 일) 무안(18:00) - 기타큐슈(19:10) / 기타큐슈(19:40) - 무안(21:00)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저렴한 아가가세 펜션 숙박(매주 일요일 출발)

북큐슈 2박3일 특가(아가가세 고급온천 펜션) 439,000원~
아마구치 [실속] 699,000원~ [홍격] 769,000원~

직장인들을 위한 매주 금요일 출발

북큐슈 2박3일(고급로칸 1박) [실속] 749,000원~ [홍격] 799,000원~
아마구치 2박3일(로칸 1박) [실속] 769,000원~ [홍격] 799,000원~

여유있는 3박4일을 원하시는 분들은 매주 화요일 출발

[실속] 북 큐 슈 3박4일 699,000원~
[홍격] 북 큐 슈 3박4일 799,000원~
[실속] 아마구치 3박4일 699,000원~
[홍격] 아마구치 3박4일 799,000원~

※일본여행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포함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안 ↔ 마츠모토(나가노, 북알프스) 직항 전세기

[오오마치 & 알펜루트 & 마츠모토 관광]

2018년 5월 18일(금)부터
주 3회 출발 / 화요일(3박4일) 금, 일요일(2박3일)

운항스케줄 무안(11:00) - 마츠모토(13:10) / 마츠모토(13:30) - 무안(16:20)

[홍격] 나가노, 마츠모토 알펜루트 관광 3일(고급로칸 숙박)
일요일 출발 938,000원(5/20 1,038,000원)
금요일 출발 998,000원

[홍격] 나가노, 나고야, 마츠모토 알펜루트 관광 4일(고급로칸 숙박)
화요일 출발 1,198,000원

★ 알펜루트 전코스 관광(실버 기간: 4/15-6/22)
(다테야마, 쿠로베 알펜루트 전 코스관광)

★★★ 일본 최고의 절경 북 알프스 관광 ★★★

★ 나가노현의 오오기사와역에서 다테야마역까지 케이블카, 고원버스, 로프웨이 등 산악루트를 이동하며 대자연의 파노라마를 만끽하는 4시간의 산책코스
(※ 웅장한 북알프스 파노라마로 감상할 수 있는 신호타카 로프웨이 탑승 포함)
(※ 일본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포함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안 ↔ 다낭 직항 전세기

2018년 5월 18일(금) 이후 쭈우욱~
주 2회 출발 / 매주 화, 금요일 출발

화 출발 무안(08:05) - 다낭(10:40) / 다낭(14:40) - 무안(20:30)
금 출발 무안(21:35) - 다낭(00:10) / 다낭(01:05) - 무안(06:55)

※ 요금은 준복합호텔 기준

[골드] 다낭·후에·호이안
3박4일(화) 699,000원~ / 3박5일(금) 799,000원~

[실속] 다낭·호이안·하트프링
3박4일(화) 669,000원~ / 3박5일(금) 799,000원~

[노팁·노옵션] 다낭·후에·호이안
3박4일(화) 869,000원~ / 3박5일(금) 969,000원~

[노팁·노옵션] 하트프링온천 + 바나산국립공원 + 호이안야경
3박4일(화) 869,000원~ / 3박5일(금) 969,000원~

※일본여행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포함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양국정부인허가조건 ※ 운항스케줄이 항공사 및 천재지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발 날짜와 인원 수에 따라 상품 가격이 다르오니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제등다2003-1호

※ 공통조건: 여행기간 1년 기준, 여행지별 기밀(예약금) 1억원, 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항공 및 선박, 전철버스 / 전 지역 ※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개별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금제 가입 업체 ※ 예약시 계약서 필수 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 경비(숙박, 식사/기타) 등 상품, 선택관광, 각종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상품에 따라 다름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